

오늘, 2009년 소띠해, 첫날을 맞았습니다. 새해 첫 날 우리가 가진 마음을 읽으실 하느님께서 당신의 뜻에 맞는 축복과 은총을 가득히 베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을 삶의 첫 자리에 두고 하느님을 항상 모시고 살았던 성가정처럼, 이 자리에 함께 모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 모두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한해, 기쁨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미사 시작에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오늘 미사는 함께 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이 기억하는 가정, 올 한 해도 하느님의 뜻을 실천할 가족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청하는 마음으로 봉헌합니다.

여러분은 새해 첫날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이제는 우리 민족의 고유한 풍습을 찾느라고 양력으로 계산하는 새해는 하루만 쉽니다. 하지만 휴일의 길이를 떠나서 그 시작에 갖는 마음은 중요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소리가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새해를 맞으면 우리는 흔히 덕담을 합니다. 덕담이란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남이 잘 되기를 빌어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덕담으로 어떤 말씀을 준비하셨습니까? 첫 번째 독서인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

예 생활하던 에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 광야를 헤맬 때를 배경으로 쓴 글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싶었던 인사말이 나옵니다. “야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고 웃으시며 우리를 귀엽게 보아주시고, 우리를 고이 보시어 평화를 주시기를 비는 축복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마디 더, 진정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란다면 하느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 주시겠다는 약속도 덧붙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일은 참 좋은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흔히 기준으로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돈 들지 않는 손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마음이 함께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느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기억하는 축제일은 우리 사람들에게 커다란 의미를 갖는 날입니다. 분명히 사람인 것을 아는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가 됩니다. 하느님이 그렇게 인정해주신 날입니다. 그것은 하느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흐뭇한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마리아와 요셉이 하느님의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신 분들이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성가정이 보여주었던 삶의 모습을 따른다면 충분히 우리도 하느님이 허락하실 축복에 참여하는 당연한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좋은 생각만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힘겹게 하는 일들,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할 일들은 가까이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멀리하려고 해도 우리에게 다가올 녀석들인데 일부러 시간을 써가며 반길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래의 걱정을 앞당겨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걱정보다는 하느님의 뜻을 먼저 찾으라고 하시며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마태 6,34)’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길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하느님의 축복도 그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2009년을 어떻게 꾸려갈지 완벽한 계획을 세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동양에서 통하는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는 말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사람이 자기 삶에 정성을 다하고 하느님의 처분을 기다린다면 그 결과는 분명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행복일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정성을 다 기울이는 자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생각은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은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은 사람을 향하여 없는 것을 만들어내라고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느님은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해야 한다고 뒤에서 총과 칼로 위협하는 분도 아닙니다. 연약한 인간이기에 여러 가지 조건을 앞세워 내 삶에 부친다고 힘겨움을 토로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생각을 조금만 바꾼다면 못할 일도 아닙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

셨고, 그 분을 통하여 당신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신 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생각보다 가까운 관계입니다. 내 앞에 놓인 어려움을 헤쳐가면 새로운 한 해, 2009년에도 하느님의 축복을 받으며 힘차게 살기를 권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제들을 위한 기도

- 영원한 사제이신 예수님,
주님을 본받으려는 사제들을 지켜주시어
어느 누구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소서.
-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제직에 올라
날마다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이루는 사제들을
언제나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주소서.
-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사제들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 사제들이 하는 모든 일에 강복하시어
은총의 풍부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 저희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그들이 더없는 기쁨과 위안을 얻고
천국에서는 찬란히 빛나는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 아멘.

본 당 소 식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교우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풍성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주임신부 김선호 루카

I wish only happy, nice, and joyful
things happens to you next year. God bless
you!

Rev. Kim Sun Ho Luke

● 오늘은 미사 후에 신년 잔치가 있습니다.

★ 새롭게 오는 형제, 자매님들을 따뜻하게
맞이 하시기 바랍니다.

● 영명축일 교우 - 축하드립니다.

1 일 글라우스 홍차근

11일 알렉산더 김현준

13일 베로니카 김지은

27일 안젤라 오미경 박인선

30일 마르티나 장지선

● 올드레야 모임 안내

신년 맞이 올드레야 모임이 1월 4일 주일 미사
후에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문의) 김현태 간사

● 바뇌기도회 안내

1월 7일 오후 7:30 김직현형제택에서 있습니다.

● 미사에 필요한 제구, 제의 등이 많이 부족합니다. 봉헌 의사가 있으신 분은 주임신부님께 말씀하시면 됩니다.

● 안내 봉사

이달부터 1구역을 시작으로 매달 구역별로 다시
돌아가면서 합니다.

● 2009년 매일 미사 책 신청

2009년 매일 미사 책을 신청 받습니다.
신청 및 문의 : 박재영(바오로) 형제님

● 미사지향

본당에서 마련한 봉투에 작성하셔서 전례분과장
을 통해 미사 전 제대에 봉헌하시면 됩니다.

● 면담안내

면담을 원하시는 형제, 자매님은 사제관에 전화
하시거나 사무봉사자를 통해 문의하십시오.



KW한인천주교회

516 Franklin St. N., Kitchener
Ontario, Canada. N2A 1Z4
☎ 519 208 1913

주임신부 김선호 루카
lucasmuse@korea.com

사무봉사자 519 894 3533

2009년도 사목지침

“말씀과 성체 안에서 본당 토대 다지기”

실천사항

1. 성서 쓰기, 읽기
2. 평일미사 참례하기
3. 주요기도문 다시 외우기

주일 미사

평일 미사

유아 세례

병자 성사

혼인 성사

예비자교리

고해성사

축복식(차량,주택,가게)

주일 오후 5시

의견 수렴중입니다

1주일 전 신청

상시

10개월 전 신청

상시 / 10회 종합교리

통신교리이수자 4회 특별교육

미사 전 20분

1주일 전 신청

2009-01

2009. 1. 1.

천주의 성모마리아 대축일

미 사 전 례

해 설 이 명희

차주 해설 김 용하

화 답 송

시편 67(66), 2-3, 5-6과; 8(82-1)



(후렴) 하느님 께-서-는 저희에 게 자비 를 베푸시 고 강-복 하--소 서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하느님께서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
여러 가지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아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도다
◎알렐루야

성 가

입 당 (255) 하늘의 여왕

봉 헌 (342) 제물드리니

성 체 (193) 지존하신 성체

퇴 장 (1) 나는 믿나이다

독 서

1월 1일 김근호

김순희

1월 4일 한택중

한재희

1월 11일 박재영

박경미

봉 헌

1월 1일 김용하

김희선

1월 4일 김근호

김순희

1월 11일 한택중

한재희

복 사

1월 1일 구한힘

구하람

1월 4일

1월 11일

친 교

1월 1일 환희팀

1월 4일 영광팀

1월 11일 신비팀

1월 18일 장미팀